

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종회 분담금 논의

제3교구 본사 신흥사(주지 도후)는 21일 교구종회를 열고 97년도 분담금 배정을 논의했다. 20여명의 교구종회원이 참석한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9일 통일전망대 점등식과 5월10일 백담사 만해기념관 상량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화사 통일전 현판 복원

동화사(주지 무공)는 전·노두 전직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인 '통일기원대전'을 가리고 있던 회색 무명천을 벗겨냈다. 이날 통일대전의 주제를 달면서 동시에 천을 벗겨냈다. 이 현판은 지난 95년 11월 6공비자금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거된 위기에 몰렸으나 일단 천으로 가려졌다.

태고종

중부전선 평화의 탑 점등

총무원(원장 인국)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남북평화통일 및 조국안정을 기원하기 위한 평화의 탑 점등식을 5월1일 중부전선 일거리 전망대에서 진행한다. 이날 점등 법요식에는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 간부 및 신도, 군복자 장병 등 5백여명이 참석하며, 인국스님의 봉축법어 및 점등식에 이어 위문법회와 위문품 전달식이 이어진다.

원각사 불교대학 개설

제천 원각사(주지 원명)가 제천불교대학을 개설, 20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제1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제천불교대학 학장을 맡은 원명스님은 "불법을 배우려는 지역민이 많은데 비해 마땅한 교육장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제천불교대 개설로 지역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가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경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불교기초교과 및 불교학, 불교사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천태종

명락사 청년회 19돌 법회

명락사 청년회(회장 최기표)는 13일 명락사 법당에서 청년회 창립 1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중양청년회원 등 모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기념법회에서 최기표 회장은 "활발한 청년회 활동을 통해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발전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총지종

통리원 전방 OP 점등식

통리원(원장 범공)은 5월 1일 육군 7사단 전방 OP에서 점등식을 봉행한다. 통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스승 및 신도 3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점등식은 사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통리원장의 봉축법어 순으로 진행되며, 위문품도 전달된다. 종단 장학회(이사장 정희수)

화엄종

62명에 종단장학금 전달

는 13일 97학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 5명 등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54명 등 모두 62명에게 4천1백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원효종

원효성사 1311주 열반제

총무원(원장 무진)은 5월6일 서울 효창공원 원효성사동상와 원효종 본사 부산 금수사 두 곳에서 오전11시 원효성사 열반 1311주년 추모대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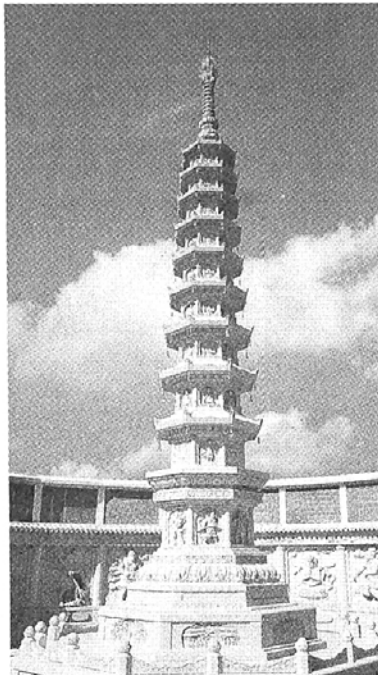
보문종

보문사 연등원 개설 운영

보문사(주지 범준)는 신도들로 하여금 초파일 행사때 밝힐 자신의 연등을 손수 만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대법당인 선불전에 '연등원'을 개설, 30일부터 5월9일까지 운영한다.

국내 최대 53존불탑 낙성

삼광사 진신사리 10과 봉안... '호국호법' 기원



높이 30m의 대보탑은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대형 석탑이다.

점등식 6만신도 참석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는 19일 국내 최대규모의 53존불 8면9층 대보탑 낙성식을 봉행했다. 현존 최고 석탑인 익산미륵사지동탑(27.8m)보다 2.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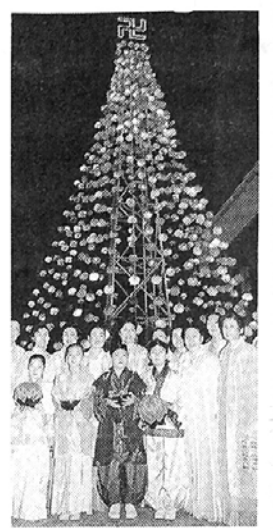
높은 높이 30m, 기단 폭 14.55m 규모의 석탑인 이 대보탑에는 티벳 달라이라마와 미얀마에서 봉안한 부처님 진신사리 10과가 봉안됐다. 불교조각가 권경학씨가 설계했다. 기단부에는 십이지신상, 팔상

도상, 사천왕상이 조각돼 있으며 탑신부에는 53존불을 봉안했다.

삼광사는 호국호법, 남북통일, 민족문화 전승의 원을 담아 6년간의 대각불사굴에 완공한 대보탑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18일 점등 법요식 및 전야문화예술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비서장, 일본 천태종무청 야마다순와 스님, 미얀마 부총정우 무마라스님 등 해외 불교인 20여명과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인사 10여명, 각급 기관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6만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한명우 기자



불법한 애기봉 봉축탑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애기봉 호국광명탑 점등식이 24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불교방송 포교프로 강화

'진리의...' '라디오쇼' 등 신설 눈길

불교방송이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유익한 방송'을 기치로 불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불교방송은 포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음악교양 오락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시도해 다양한 '들음 거리'를 제공한다.

불교방송은 이번 개편에서 △진리의 수레바퀴(PD 김상준)-오전7시10분 △아침을 열며 1·2부(PD 박상필)-오전7시15분(1부) 오전8시25분(2부) △인

연의 길(PD 이선희)-오후2시10분 △음악여행 1·2부(PD 강선문)-일요일 오후6시15분(1부) 오후7시10분(2부) △음악의 마을(PD 황용관)-오후4시5분 △BBS라디오쇼-일요일 오후1시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한편 '오늘의 법구경' '진정법의 열린 경제' 'BBS스포츠' '주간 북한소식' '가톨릭가의 합창' '트루트 한미당' '명상음악' 등의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BBS 개국 7돌 특집

5월1일로 개국 7주년을 맞은 불교방송이 공개방송 축하공연 등 개국 기념 특집 프로그램 3편을 선보인다. △참사특집 '진리의 빛은누리에' (1일 오후5시10분)=개국 당시 참여한 불자들의 염원

장 한지 생방송으로 청취자를 찾아가다. 김홍국과 이매리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트루트의 향연으로 가수 설운도 현숙 최진의 최백호씨들이 출연하고 2부는 언타일을 주주클럽 구피신요법 등이 노래와 춤을 선사한다. △BBS '자비의 전화' (1일~3

'진리의 빛...' 장묘제도 해결방안 모색

'위성 축하공연' 서울랜드 가요향연 생방

을 들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장묘제도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시간과 화장제도 정착 등 장묘제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성생방송 'BBS 참사 7주년 기념 축하공연' (1일 오후12시20분)=서울랜드 삼천리대극

일 오전10시)=송승남(개화산 미타사 주지), 동봉스님(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등이 출연해 불자들의 공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이번 특집은 스님과 불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열어줄 예정이다. (연)

소년가장돕기 음성공양

성보사 18명에 장학금

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원장 운희)는 30일 고양시청 문화회관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성공양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고양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성보사 신도 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성보사는 18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3백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성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함께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여흥시간을 가졌다.

총지종 정각사 범당 헌공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행사가 유럽의 독일 땅에서도 다량하게 펼쳐진다. 독일 주재 각국 사찰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봉축행사는 5월 11일 스리랑카 독일법당의 법요식과 학술 세미나, 석왕사 독일본원, 광법사의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어 한미음선원 독일지원은 5월 14일 법요식과 '부처님 일대기' '산사의 하루' 비디오 상영, 제등행렬을 갖는다. 베를린 불교연합회도 5월 24일 한국 베트남 등 5개국 스님들의 (반야심경) 봉독, 연꽃놀이잔치, 한



부산 총지종 정각사(주교 정심)는 17일 3층 서원실에서 종단 스승 및 각 사암 주교, 지역 기관장 및 지역인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헌공대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완공된 정각사 범당은 93년 착공 연건평 4백8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건평 5백40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어 영남 포교의 중심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주재 사찰 봉축행사 다채

한미음선원·석왕사지원 등 각종 전시회·세미나

글·한문 사경희와 각국 불교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보문사(주지 범오)는 5월 25일

해외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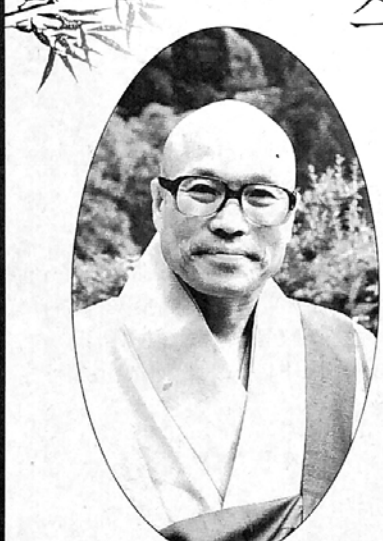
사진 전시회 및 시낭송회, '지혜와 자비의 등불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또 세계문화재 장경 관서 및 서예·사진전시, 사경법회 등도 개최한다.

마음 놓고 돌리는 공덕

다 놓고 돌리는데 그 공덕은 무한하다. 첫째로 일체의 오무가 지옥이 무너진다. 둘째로 인연따라 억겁 전생부터 내려온 모든 습관이 녹고있다. 셋째로 번뇌망상으로 고통받던 그릇이 비게 되면서 마친내 빈것도 없고 텅진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 바운 '깨달음'이 발생된다.

협찬 한미음선원 범형제회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Advertisement for 'Prayer' (기도) book series by Il-tarsnim. Includes title '기도', author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and a list of books with prices: '기도 성취의 지름길' (3,500 won), '생활 속의 기도법' (3,500 won), '특별 기도 성취법' (3,500 won), '영가 천도 기도법' (3,500 won),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5,000 won),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5,000 won),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5,000 won),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5,000 won),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반(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 (6,000 won),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기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10,000 won).